



## 은유분석을 이용한 관광윤리 개념체계에 관한 연구\*

- 관광교과목 수강 대학생을 중심으로 -

Study on Conceptual System of Tourism Ethics using Metaphor Analysis : Focusing on Undergraduate Students taking a Tourism Subject

장 혜 원\*\*

Jang, Hye-Won

**요약** : 본 연구는 올바른 윤리교육과정의 방향을 위해 은유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관광윤리에 대한 개념체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11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광윤리에 대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선택한 이유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표현한 은유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 은유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윤리는 실행적 도덕추구형, 관계적 도덕추구형, 사회적 도덕추구형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각각의 관광윤리 유형은 학생들의 전공,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생들의 전공과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산업영역에 기초하여 적절한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광전공 학생의 교육지침을 위해 중요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관광목적지 의사결정에 통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핵심용어** : 관광윤리, 관광교육과정, 은유분석

**ABSTRACT** : The present study aims at understanding undergraduate students' conceptual systems of tourism ethics by metaphor analysis for appropriate direction of the ethics curriculum. For this study, a total of 115 undergraduate students from all grades were asked to describe tourism ethics metaphorically and were asked to write down their reasons for the metaphors they chose. To analyze their metaphors, systemic metaphor analysis was adop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actical moral-seeking type, interpersonal moral-seeking type, and social moral-seeking type were derived from tourism ethics.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m ethics types according to the major, grade, and gender of undergraduate students. Thus, we suggest that when building an ethics curriculum, planners should consider both the major and gender of the undergraduates, and then develop the instructional methods based on the industrial fields. These results have importance not only as educational guidelines for tourism students but also for informing decisions about the tools that tourism destinations can effectively employ to control the tourism industry.

**Keywords** : Tourism ethics, Tourism curriculum, Metaphor analysis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8020585)

\*\* 제주대학교 관광과정경영경제연구소. e-mail: lovepiano9928@hanmail.net

## 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은 나날이 경영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관광산업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관광 관련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교육기관에서도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관광인력을 양성하고 있다(Theobald, 2005).

복잡한 관광환경은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 관광을 둘러싼 정치적·사회문화적·기술적 환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관광관리자는 다면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구나 지난 수십 년 간 소비 트렌드로서 윤리적 소비가 관광환경에서도 확산되고 있어(Goodwin & Francis, 2003), 관광기업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및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관광윤리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고되면서 관광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장혜원·김강호·오상훈, 2019; 장혜원·최병길, 2019; Tribe, 2002).

관광윤리는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관광목적지를 관리함에 있어 유익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조정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관광기업 입장에서도 윤리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잠재적으로는 경영이익, 경영효율, 공공 이미지 및 노사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관광관리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방법론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Fleckenstein & Huebsch, 1999; Hudson & Miller, 2005).

개인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장기간 동안 형성되어온 내적규범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광관리자가 관광행위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윤리훈련이 필요하다. 향후 관광실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될 대학생들은 대학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을 경험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관광윤리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Tribe, 2002). 윤리적 딜레마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언제나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과정에서 이의 대처법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Fennell, 1999). 제한된 성과로 관광전공 학생의 윤리적 지향 연구(Freedman & Bartholomew, 1990; Pizam & Lewis, 1979; Stevens, 2001; Whitney, 1989), 미덕윤리를 통한 커리큘럼 제안(Tribe, 2002), 관광서비스 제공자와 관광전공 학생들의 전문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함에 있어 그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가 있다(Enghagen 1990; Freedman & Bartholomew, 1990; Hegarty, 1992; O'Halloran, 1991; Sheldon, 1989; Tarlow, 2003).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관광이론 및 실무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관광윤리의 개념적 토대조차 취약한 상태다.

이상의 논의에 의해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관광윤리에 대한 개념체계를 탐색하였다. 은유분석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관광윤리 개념이 어떻게 관습적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이의 인지적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Vosniadou & Ortony, 1989). 은유적 사고와 표현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통찰을 구체화시켜주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이나 관념을 연구하는 분야에 적합하다(이연선, 2015). 은유분석을 통해 도출된 관광윤리 개념은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틀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관광인력으로 진출하게 될 대학생들의 윤리의식을 파악함으로써 관광

교육과정에서 윤리학습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한편으로는 관광기관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지침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 이론적 고찰

### 1. 관광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의 필요성

#### 1) 윤리교육 관련 관광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학교에서 학습해야 하는 과정 또는 교육기관이 학습하도록 계획하는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김경배·김재건·이홍숙, 2005).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는데(박일수·권낙원, 2007), 이는 교과과정과 교육과정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이혜숙, 2004). 하지만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 및 학습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편성한 전체 계획을 일컬으며, 교과과정은 교육내용과 그 자료에 대한 계획이나 조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윤리 교육과정을 윤리교육의 가치적 측면에서 편성하거나, 내용적 측면에서 실행하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대학의 교육지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관광교육과정의 운영은 관광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관광인력의 수요와 공급, 특수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적 방법, 그리고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한 교과과정 개발에 관계된다. 따라서 관광교육과정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산업체 중심의 의료관광관련 학과 교육과정(이세희, 2016), 특수대학원 관광관련 학과 교과과정 모형설계(차석빈·이동수, 2001), 레저관광경영학 교육과정 개발(황옥선, 2012), 호텔경영학과 교과과정 분석(최영준, 2012), NCS 기반 교육과정 분석(이희수, 2017)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관광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관광 이슈를 다루는데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여 개인 경험을 해석하고 판단함으로써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관광산업의 위락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도덕 및 윤리 교과목 편성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관광전공 학생 수가 관광산업의 발전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향후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통제하기 위한 학습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Donyadide, 2010).

윤리적 의사결정은 사전 윤리교육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Whitney, 1989). 따라서 관광업무 수행과정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윤리학습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해외연구는 조직의 채용과 업무과정에서의 윤리적 접근(Stevens, 2001), 관광 윤리코드와 같은 수단적 가치(Cleek & Leonard, 1998), 관광전공 학생들의 윤리적 지향 탐색(Freedman & Bartholomew, 1990; Pizam & Lewis, 1979; Stevens, 2001; Whitney, 1989) 등이 있다. Tribe(2002)는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관광윤리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는데, 윤리적 관광행위를 위한 교육으로서 첫째, 지속가능한 관광원칙의 지식과 둘째, 원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실천적 지혜)를 따르는 실습을 제안하였다. 반면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윤리의식을 연구한 사례는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와 학습 간의 영향을 측정된 경우가 있다(Fulmer & Cargile, 1987; Weber, 1990). 또한 전공에 따른 윤리 유형을 탐색한 Harris(1991)는

경영전공 학생은 목적론적(이기주의와 공리주의) 접근을 선호하며, 반면 비경영 전공 학생은 의무론적(칸트의 도덕률) 접근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Okleshen and Hoyt(1996)는 윤리학습이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동질성을 창출하고 윤리적 가치에서 문화적 이해를 비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윤리와 성(gender)에 대한 연구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덜 관대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Beltrami, Petersone & Kozmersky, 1984; Cohen, Pant & Sharp, 2001; Ferrell & Skinner, 1988; Peterson, Beltramini & Kozmetsky, 1991; Ruegger & King, 1992). Galbraith and Stephenson(1993)은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여학생은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반면, 남학생은 이기주의 접근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Jones(1993)는 윤리적 원칙에 의한 응답자의 수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 관광관리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지금까지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에서는 두 개의 접근방식이 관심을 받아왔다. 의무론과 목적론이 그것이다(McDonald & Beck-Dudley, 1994). 의무론적 접근에는 소크라테스부터 칸트까지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다(McDonald & Beck-Dudley, 1994). 의무론은 보편적 진리의 사고에 관계되는 것으로 상황에 관계없이 도덕적 입지를 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의 지상명령에 따르면 문제에 봉착한 사람은 그들의 도덕적 원칙에 의거하여 일관되게 대응하고 이런 의사결정에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적론은 공리주의 Jeremy Bentham and John Stuart Mill의 철학적 연구로부터 이어지는 “결과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Kaynama, King & Smith, 1996). 따라서 윤리적 결정은

기대한 결과의 관점에서 행해지며, 맥락에 종속된 원칙과 의사결정의 보편성을 제거하여 취해진다. 결론적으로 의무론이 수단을 결말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며, 목적론은 수단을 정당화한 결말이다.

윤리적 의사결정 이론을 이해함으로써 관광관리자는 법률과 같이 관광활동에 필요한 원칙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의무론자가 법을 위반한다면 그들은 윤리적 관점을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률은 입법가치와 무관하게 준수될 것이다. 반면 목적론자는 법을 위반했을 때의 혜택에서 발생할 결과를 고려한다. 만약 관광 전공 학생이 윤리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목적론 접근법을 적용한다면, 법률제정은 단지 효율적 측면으로 부각될 수 있어 학생들의 의사결정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광에서 윤리적 접근은 기업윤리, 윤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윤리적 고려와 같은 측면에서 발전해왔지만 복잡한 관광환경에서 윤리 및 도덕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불충분하다(Fennell, 1999). 이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자원의 한계성으로 자연환경을 레저자산으로서의 가치보다 본원적 가치로 더 인식해야 한다는 환경윤리가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관광윤리는 환경이슈에 편향되어 있는데(Hughes, 2005), 이런 논쟁으로의 노출을 통해 학생들은 잠재적으로 관광윤리에도 더 민감해질 수 있다. 장혜원·김강호·오상훈(2019)은 관광종사원의 윤리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인식 및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더 지각한다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관광종사원들의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관광윤리코드가 있는데, 이는 WTO에 의해 관광의 global code of ethics으로 승인되었다(UNEP-ICLEI, 2003). 관광윤리코드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견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지침은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관광활동으로부터 세계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광에

서 유발된 이익을 관광목적지 주민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것이 관광관리자의 의사결정 방법을 전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관광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될 대학생들은 대학교육과정에서 충분한 윤리교육 훈련을 거친 후 산업현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 2. 은유의 개념 및 분석

### 1) 은유의 개념

은유는 하나의 경험에 대한 재현을 통해 복잡한 주제 또는 새로운 상황의 이해를 얻는 비유이다(Vosniadou & Ortony, 1989). 은유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언어·철학적 관점과 인지·미론적 관점으로 구분되고 있다. 은유를 언어의 파생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언어·철학적 관점이며(노양진, 2010), 은유를 언어의 수사학적 차원을 벗어나 인간 개념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인지·미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Lakoff & Johnson, 1980). 특히 이 관점은 개념적 은유로서 구체화되었는데, 말하는 방식, 더 나아가 행동하는 방식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말하는 방식 혹은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되는 은유적 언어 표현과는 다르다(서우석, 2011).

개념적 은유는 구체적·경험적이며 기존의 익숙한 것을 통해 새롭고 추상적인 것을 구조화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인지과정이다. 사람들은 주변의 현상을 인식하여 개념화하고 범주화하는 일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때 은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은유는 언어적 현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개념의 속성이자 사물에 대해 사고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이다(채희진, 2014).

개념적 은유는 하나의 근원영역(source domain)으로부터 다른 목표영역(target domain)으로

의 체계적인 인지적 사상(cognitive mapping)이다. 경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조직화(Kövecses, 2002)나 체험에 의해 형성된 도식적 원형이 근원영역을 이루고 이러한 도식적 원형이 목표영역의 이해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사랑은 여행이다>라는 은유에서 '사랑'은 목표영역이 되고 '여행'은 근원영역이 된다. 이 두 영역 사이에는 체계적인 대응관계가 있는데, 이는 근원영역을 구성하는 개념적 요소가 목표영역을 구성하는 개념적 요소에 대응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개념적 대응관계는 사상(mapping)이다. 따라서 개념적 은유를 안다는 것은 주어진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짝짓기에 적용되는 일련의 체계적인 사상을 안다는 것이다.

특정한 개념적 은유를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사상으로서 은유적 언어 표현들의 많은 의미 부분을 제공한다(Kövecses, 2002). 위의 예로 든 <사랑은 여행이다>의 은유 표현에서 연인은 여행자가 되고 특정 운동수단으로 여행해서 특정 경로를 따라 나아가고 장애물의 방해를 받는다. 사랑이라는 목표영역이 어떠한 근원영역으로 사상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언어적 은유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의 사상과 일치해야 한다. 이 같이 한 개념의 관점에서 다른 개념을 설명·이해하고 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 속에서 관습적 방식으로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기는 힘들다. 우리의 언어는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체계가 은유적이라는 것을 대부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의식할 수는 없으나 인간의 사고과정과 개념체계의 대부분은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이연수·박세원, 2012).

### 2) 은유분석

질적연구의 도구로서의 은유분석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의 은유적 언어표현들에 의해 도출

되는 개념적 은유들을 조사하여 범주화하는 것으로 주어진 주제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사고 유형과 신념이나 행동을 구성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통찰력을 제공한다(채희진, 2014; 재인용: Armstrong, Davis & Paulson, 2011; Cameron & Low, 1999). 은유분석은 언어의 잠재적이고 자동화된 과정에 대한 함축적인 이론적 구조와 내용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맥락을 파악하고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Moser, 2000). 따라서 은유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과 앎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며, 은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각되는 특정부분과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다른 부분이 발생됨에 따라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Slingerland, 2004). 아직 관광윤리에 대한 개념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관광윤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통찰을 구체화된 은유적 표현을 은유분석으로 탐색할 수 있다(이연선, 2015).

은유분석의 목적은 은유적 언어표현을 분석하여 개념적 은유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다. 은유분석은 원관념과 은유적 표현 간의 유사성이나 관념 등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은유적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은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대개의 경우 은유의 의미는 모호한데, 은유적 문장은 전혀 다른 의미의 두 낱말이 병치된다. 여기서 한 낱말은 대상을 가리키고 다른 낱말은 그 대상을 서술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박근서, 2002). 따라서 은유적 의미는 원관념과 은유적 표현 사이의 해석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상호이해가 증진되어 보다 분명해진다.

은유분석은 다음의 특성에 의해 다면적 연구관점을 갖는다. 첫째, 은유는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은유는 복잡한 주제의 반영과 소통 그리고 새로운 상황의 예상, 인식, 경험 등의 해

석과 향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Gentner & Gentner, 1983). 따라서 은유는 자기반영, 기대와 소통을 위한 중요한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Moser, 1998; Ottati, Rhoads & Graesser, 1999). 둘째, 은유는 암묵지의 신뢰할만하고 접근가능한 조작화이다. 암묵지에 대한 연구에서 재현뿐만 아니라 암묵지의 접근성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Neuweg, 1999; Sternberg & Horvath, 1999). 하지만 은유는 암묵지의 언어적 표현이며, 은유적 표현은 일상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접근가능하다. 심리학분야에서 은유는 조작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면서 측정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Moser, 1998; Ottati, Rhoads & Graesser, 1999). 셋째, 은유는 이해와 지식의 전체적 재현이다. 은유는 복합적 지식과 비유적 문제해결방식의 광역성의 재현으로 하나의 사례가 된다. 넷째, 관습적 은유는 자동화된 행위의 예이다. 일반적으로 언어에서 관습적 은유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학습되어 왔다. 관습적 은유는 잠재의식적이 되며 대부분의 다른 언어 기능처럼 자동적으로 사용된다. 다섯째, 은유는 이해의 사회적·문화적 과정을 반영한다. 은유는 맥락 의존적이며 자기 이해와 정의(definition)의 사회문화적 과정을 반영한다. 즉, 은유는 자신의 공유된 문화적 이해를 재현한다.

국내연구에서 은유분석을 적용한 사례로는 교육학에서 특정 개념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다수이다(강유미, 2017; 이연선, 2015; 채희진, 2014). 해외연구에서는 교육학(Paulson & Armstrong, 2011; Saban, Kocbeker, & Saban, 2007), 조직론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체계(Andriessen, 2009; Moser, 2000) 등이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관광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정보를 얻고자 학생들의 윤리인식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광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관광윤리에 대한 평소의 인식을 은유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은유분석에서는 정량적·정성적 접근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은유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은유 사용에서 일반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정성적 분석을 통해 맥락에서의 은유 사용의 분석, 대화 텍스트의 맥락과 전기적 재구성의 맥락에서 은유적 표현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내용분석과 대화 텍스트에 의한 정성적 은유분석이 병행됨으로써 은유 사용의 상황적, 전기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의 이해가 강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은유분석으로 체계적 은유분석(systematic metaphor analysis)을 채택하였다(Schmitt, 2005). 이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은유분석의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목적을 설정하여 목적에 따른 표집방법을 선택한 후 연구주제와 관련된 은유적 표현을 선별한다. 면담이나 텍스트 관찰 등의 자료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을 선별하는데, 이의 준거로는 첫째,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선 표현인지 구별해야 한다. 둘째, 특히 감각적 경험이나 문화적 경험이 포함된 표현일 경우 은유적 표현으로 기술된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셋째,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추상적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견이 분석자 간에 합의가 될 때이다.

다음은 코딩 단계로 분석된 텍스트에 양적분석을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응답자의 은유적 표현들을 유사성을

기준으로 범주화한다. 같은 범주에 속한 은유적 표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범주명을 명명한 후 통계분석을 실시한다(이연선, 2015).

본 연구는 체계적 은유분석에 근거한 설문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관광윤리에 대하여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s)의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였고(Lakoff & Johnson, 2003), 또한 그렇게 기술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구조적 은유는 한 관점(개념)에서 다른 관점(개념)을 바라보고 이해·설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관광윤리 개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한다. 학생들이 기술한 은유적 표현과 이유를 근거로 그들의 개념을 질적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이연수·박세원, 2012).

본 연구의 개방형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나에게 관광윤리란 ~ 이다. 왜냐하면 ~ .”  
나. (가)에 답한 개념적 은유를 형성하게 된 이유를 기술하시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대학에서 관광경영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로 한정하였으며, 관광교과목 강의가 종료된 후 담당교수의 사전 허락 하에 실시되었다. 총 4개 교과목 수강생 중 121명이 표본이 되었다. 조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총 115개의 질문지가 이용되었다. 응답자를 전공별로 비교해 봤을 때, 전공학생은 총 95명으로 82.6%이었으며, 비 전공학생은 20명으로 17.4%를 차지하였다. 학년별에서는 3학년이 52명으로 45.2%, 4학년이 30명으로 26.1%, 2학년이 28명으로 24.3%, 1학년이 5명으로 4.4%를 나타냈다. 성별에서는

〈표 1〉 설문대상 개요

학년	관광 전공		관광 비 전공		남성		여성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3	3.2	2	10.0	4	7.5	1	1.6	5	4.4
2	25	26.3	3	15.0	8	15.1	20	32.3	28	24.3
3	50	52.6	2	10.0	25	47.2	27	43.5	52	45.2
4	17	17.9	13	65.0	16	30.2	14	22.6	30	26.1
합계	95	100.0	20	100.0	53	100.0	62	100.0	115	100.0

남성이 53명으로 46.1%, 여성이 62명으로 53.9%를 차지하였다.

## 2. 분석 절차

수집된 설문 응답의 분석 절차는 체계적 은유 분석을 본 연구의 특성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이연수·박세원, 2012).

첫째, 자료정리 단계로 설문지를 취합하여 전공과 학년별로 분류·정리한 후 분석 단위 결정과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이 단계에서 은유의 표현 내용과 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로 구분하여 상호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문의 내용에 맞지 않게 응답을 하였거나, 은유 분석이 불가능한 형식으로 응답한 경우, 두 개 이상의 은유를 제시한 경우,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는 경우, 은유가 아닌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응답한 설문지 등은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관광윤리란 과속방지턱이나 안전벨트이다. 왜냐하면 과속하면 교통단속에 걸리거나 사고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에서 관광윤리를 ‘과속방지턱’과 ‘안전벨트’ 등 2개로 은유적 표현을 한 경우가 있을 때 이를 제외하였다.

둘째, 특성화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은유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위한 단위로 결정하였다. 은유적 표현과 이에 대한 이유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은유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즉, 은유 표현과 이유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고, 은유

표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글에서 핵심 내용, 단어, 문장을 확인한 후 이를 키워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범주화 단계는 특성화를 통해 정리한 키워드를 연구자들이 거듭 읽으면서 유사한 범주로 묶는 작업과정이다. 분석자의 주관적 관점을 최소화하여 범주화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작성한 후 이에 근거하여 상호교차로 범주화 작업을 하였으며, 같은 범주로 분류되지 않은 키워드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합의한 다음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넷째, 코딩 단계는 범주화한 설문을 양적분석을 위하여 은유분석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을 변수화하여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 전공여부, 성별, 윤리유형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다섯째, 양적 분석 단계는 코딩한 설문을 전공별, 학년별, 성별에 따라 유형별로 통계 처리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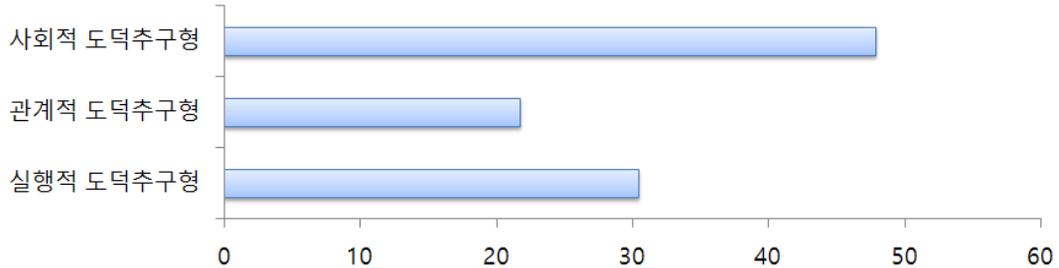
## IV. 분석결과

### 1. 관광윤리에 대한 인식 유형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관광윤리에 대해 은유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유형으로 도출

〈표 2〉 관광윤리 개념 유형의 빈도분석 결과

실행적 도덕추구형		관계적 도덕추구형		사회적 도덕추구형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35	30.4	25	21.7	55	47.8



〈그림 1〉 관광윤리 개념의 유형 비율

되었다. 즉, 실행적 도덕추구형, 관계적 도덕추구형, 사회적 도덕추구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에 대한 명명은 Kohlberg(2001)의 도덕발달단계에 따른 도덕적 가치를 참고하였다. 전체비율 중 실행적 도덕추구형은 30.4%, 관계적 도덕추구형은 21.7%, 사회적 도덕추구형은 47.8%를 차지하였다.

1) 실행적 도덕추구형

본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관광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 집단은 윤리란 행동의 지침 또는 바른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된다. 이 집단은 관광 관련 활동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킬 때만이 의미가 있다는 의무론적 관점을 견지한다. 본 유형으로 범주화된 은유의 예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 관광윤리란 분리수거이다. 꼭 해야 하지만 (지켜야 되지만) 지키기 귀찮은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막상 지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 나에게 관광윤리란 스피드건이다. 왜냐하면 속도를 지켜야 하고 과속하면 스피드건에 걸려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 관광윤리란 유통기간이다. 왜냐하면 관광활동에서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처럼 쓰레기가 돼버릴 것이다.
- 관광윤리란 질서이다. 왜냐하면 질서 있는 관광을 실천할 때 관광윤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2) 관계적 도덕추구형

본 유형에는 관광주체들이 관광활동을 함에 있어 서로 배려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속한다. 따라서 이 집단은 관광윤리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범을 지키는 대인간 규준적 관점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즉,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타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도움을 주는 행동이 요구되는 유형이

다. 관계적 도덕추구형으로 범주화된 은유의 유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관광윤리란 모두를 기쁘게 하는 행위이다. 모두가 관광윤리를 지키며 정직한 관광활동을 한다면 관광제공자나 관광소비자 모두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관광윤리란 행복이다. 왜냐하면 윤리는 나에게 정직함과 배려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해 배려를 하고 맡은 바 거짓 없이 정직했을 때 분야에 관계없이(관광분야에서도) 윤리가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 나에게 관광윤리란 배려이다. 왜냐하면 관광주체, 객체, 매체 등 모두 서로 배려해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나에게 관광윤리란 신호등이다. 왜냐하면 신호등의 빨간불이나 파란불처럼 관광지에서도 먼저 구경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다른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위협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나의 규칙·규범처럼 관광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 3) 사회적 도덕추구형

본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관광주체들의 의사결정은 도덕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사회적 도덕추구형은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와 약속을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갖기 때문에 서로 간의 선의, 신뢰, 믿음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본 유형으로 범주화된 은유의 예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 관광윤리란 암묵적인 약속이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서 관광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시끄럽게 떠들고 질서를 지키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광객과 현지인 사이의 매너가 될 수 있다.

- 관광윤리란 팀플레이이다. 왜냐하면 관광윤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당 관광지의 사업체, 지역주민, 담당 공무원이 협력해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 관광윤리란 양심이다. 왜냐하면 관광활동은 관광지의 환경을 지켜야 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와 삶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 2. 관광윤리 유형에 따른 전공별, 학년별, 성별에 따른 비교

은유분석을 통해 도출된 관광윤리 개념이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윤리유형과 관광 전공 여부, 학년, 성별에 따라 교차분석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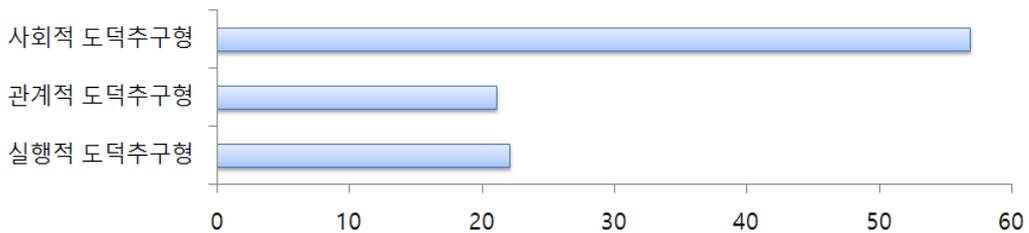
### 1) 전공별 관광윤리 개념 분석결과

관광윤리 개념을 전공 여부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확률  $p=.000$ 으로 나타나 전공에 따른 관광개념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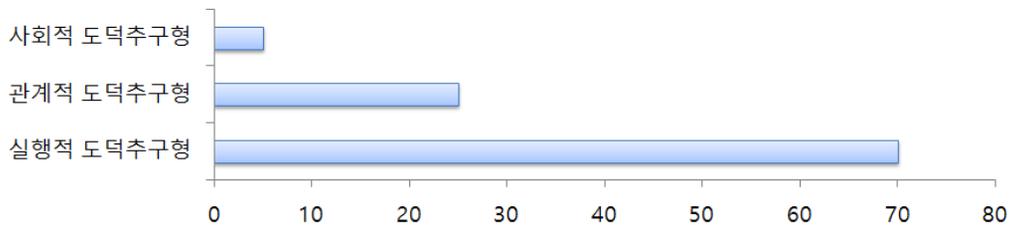
먼저, 관광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관광윤리 개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사회적 도덕추구형에는 54명(56.8%)이 속해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실행적 도덕추구형 21명(22.1%), 관계적 도덕추구형 20명(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도덕추구형이 관계적 도덕추구형 및 실행적 도덕추구형의 비율을 두 배 이상 넘고 있다. 따라서 관광을 전공하는 다수의 학생들의 관광윤리

〈표 3〉 관광윤리 개념에 대한 전공별 교차분석

구분	실행적 도덕추구형		관계적 도덕추구형		사회적 도덕추구형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관광전공	21	22.1	20	21.1	54	56.8	95	82.6
관광 비 전공	14	70.0	5	25.0	1	5.0	20	17.4
합계	35	30.4	25	21.7	55	47.8	115	100.0



〈그림 2〉 관광전공 학생의 관광윤리 개념에 대한 교차분석



〈그림 3〉 관광 비전공 학생의 관광윤리 개념에 대한 교차분석

에 대한 인식은 공리주의적 도덕가치에 관련이 높다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관광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관광윤리 유형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었다. 먼저 실행적 도덕추구형이 14명(70.0%)으로 절반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관계적 도덕추구형 5명(25.0%), 사회적 도덕추구형 1명(5.0%) 순을 보였다. 이의 결과는 실행적 도덕성이 사회적 도덕성은 물론 관계적 도덕성 보다 현저하게 높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관광 비 전공자의 관광윤리에 대한 인식은 주로 의무론적 도덕가치에 관계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 2) 학년별 관광윤리 개념 분석결과

다음으로 관광윤리 개념을 학년에 따라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확률  $p=.003$ 으로 나타나 학년별에 따른 관광개념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행적 도덕추구형에는 4학년(42.9%)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관계적 도덕추구형에는 3학년(56.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도덕추구형은 3학년(45.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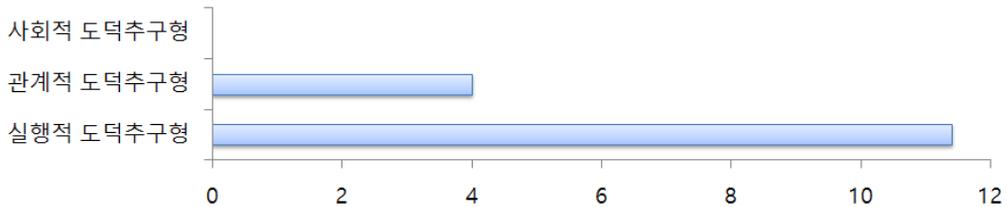
이러 학년별로 세분하여 관광윤리 개념의 특성을 빈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학년에는 실행적 도덕추구형이 4명(11.4%)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계적 도덕추구형 1명(4.0%)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도덕추구형에 속한 학생은 없었다. 1학년의 관광윤리에 대한 인식은 의무론적 도덕가치를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2학년의 관광윤리 개념에 대한 인식을 빈도분석한 결과, 사회적 도덕추구형이 20명(36.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관계적 도덕추구형이 5명(20.0%), 실행적 도덕추구형이 3명(8.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학년의 관광윤리에 대한 인식은 공리주의적인 도덕가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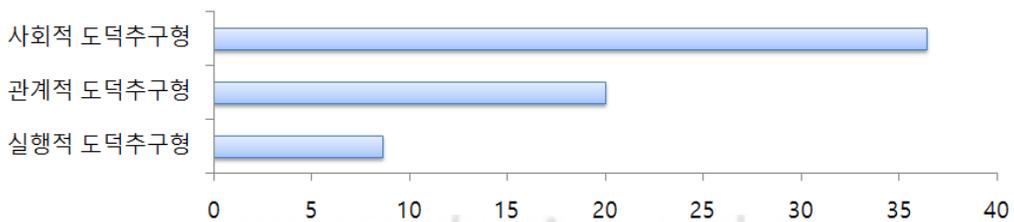
3학년의 관광윤리 개념에 대한 인식을 빈도분석한 결과 관계적 도덕추구형이 14명(5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도덕추구형 25명(45.5%), 실행적 도덕추구형 13명

〈표 4〉 관광윤리 개념에 대한 학년별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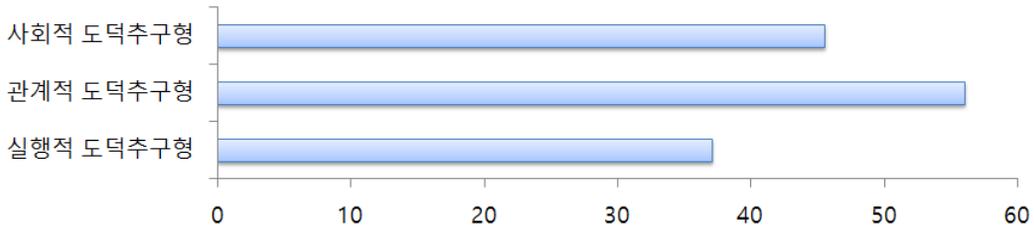
구분	실행적 도덕추구형		관계적 도덕추구형		사회적 도덕추구형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학년	4	11.4	1	4.0	-	-	5	4.3
2학년	3	8.6	5	20.0	20	36.4	28	24.3
3학년	13	37.1	14	56.0	25	45.5	52	45.2
4학년	15	42.9	5	20.0	10	18.2	30	26.1
합계	35	30.4	25	21.7	55	47.8	1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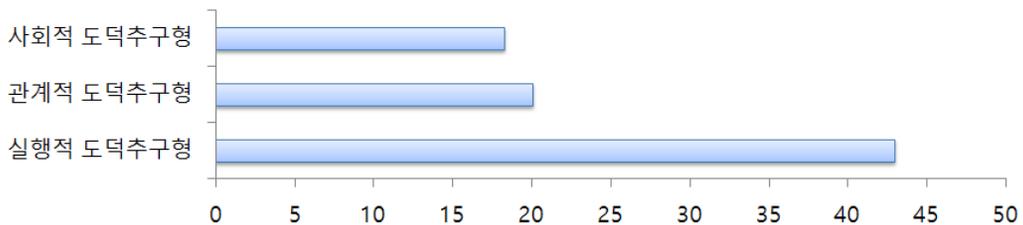
〈그림 4〉 1학년 학생의 관광윤리 개념에 대한 교차분석



〈그림 5〉 2학년 학생의 관광윤리 개념에 대한 교차분석



〈그림 6〉 3학년 학생의 관광윤리 개념에 대한 교차분석



〈그림 7〉 4학년 학생의 관광윤리 개념에 대한 교차분석

〈표 5〉 관광윤리 개념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구분	실행적 도덕추구형		관계적 도덕추구형		사회적 도덕추구형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성	26	22.6	18	15.7	9	7.8	53	46.1
여성	9	7.8	7	6.1	46	40.0	62	53.9
합계	35	30.4	25	21.7	55	47.8	115	100.0

(37.1%) 순으로 나타나 3학년의 관광윤리 인식은 전반적으로 대인간 규준적 관점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4학년에서는 관광윤리 개념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실행적 도덕추구형 15명(42.9%), 관계적 도덕추구형 5명(20.0%), 사회적 도덕추구형 10명(18.2%) 순의 비율을 보였다. 실행적 도덕추구형이 다른 유형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3) 성별 관광윤리 개념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관광윤리 개념을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확률은  $p = .000$ 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관광개념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실행적 도덕추구형이 26명으로 22.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관계적 도덕추구형은 18명으로 15.7%, 사회적 도덕추구형은 9명으로 7.8%를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우 사회적 도덕추구형이 46명으로 40.0%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실행적 도덕추구형 9명으로 7.8%, 관계적 도덕추구형이 7명으로 6.1%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관광윤리를 의무론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공공의

선을 위한 사회적 규범으로 인식에 가깝다고 해석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관광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윤리의 개념체계가 어떠한지 은유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토대로 관광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관광윤리 유형은 실행적 도덕 추구형, 관계적 도덕 추구형, 사회적 도덕 추구형 등 3가지로 도출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Harris (1991)의 학생대상 윤리연구에서 목적론적(이기주의와 공리주의) 유형, 의무론적(칸트의 도덕률) 유형이 도출된 것과 비교했을 시 더 넓은 범주를 본 연구의 유형이 포괄하고 있다. 성인의 위치에 있는 대학생들은 사회의 일반 통념에 가까운 윤리인식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관광 전공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윤리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관광전공 학생인 경우 사회적 도덕 추구형, 비 전공학생인 경우 실행적 도덕 추구형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전공관련 학습의 기회가 많을수록 해당 분야에 대한 윤리의 필요성을 사회적 공익의 관점에서 더 지각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셋째, 학년별 윤리유형에도 차이가 나타났지만 1학년 표본수가 적어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2·3·4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관적인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대학 교과목이 학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학년과 윤리인식 차이에 별다른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관광윤리는 학년 수준보다 교과목의 이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성별에 따른 관광윤리 유형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사회적 도덕 추구형, 남성의 경우 실행적 도덕 추구형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윤리적 딜레마를 평가하는데 여학생은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반면, 남학생은 이기주의적 접근을 선호한다고 주장한 Galbraith and Stephenson(1993)의 연구결과에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학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아직까지 관광윤리에 대한 통합된 개념적 정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관광주체의 인지구조를 밝혔다는 것이다. 또한 질적연구로서 은유분석을 통해 개인의 경험에 따른 통찰을 탐색한 후 양적분석에 의해 일반적인 경향성을 도출함으로써 정성적·정량적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보완하고 타당성을 확보한 것은 본 연구의 성과이다.

다음으로는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관광분야에서의 윤리적 이슈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비교적 최근 관광윤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 성과는 미미하다. 최근 기업의 윤리적 문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기업의 리스크로 연결되고 있다(장혜원·최병길, 2019). 이런 현상에 대한 구성과 해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관광전공 학생들의 윤리의식은 일반인의 도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사회적 윤리의식 즉, 공리주의적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의 교습방법은 규범 중심의 일방적인 교화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도

덕적 판단, 추리, 추론 등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졸업생들이 관광현장에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과제를 통해 학습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Jamal, 2004). 견습 기간, 인턴십, 교육 과정, 연구프로젝트 등의 사례에서 역할극을 통해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관광윤리교육은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전공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들 들어 본 연구결과에서 관광 비 전공 학생의 관광윤리 개념은 관광 전공 학생보다 징벌적 형태의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비 전공학생의 관광윤리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좀 더 사회적 가치로 윤리원칙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라서도 추구하는 윤리가치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관광윤리교육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남녀가 서로의 윤리적 특성을 이해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Okleshen & Hoyt, 1996).

이상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기존의 연구에서 관광윤리를 연구한 사례가 부족하여 본 연구와의 비교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윤리에 대한 개념화와 함께 이에 대한 조작화를 통한 실증분석으로 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윤리적 원칙이 전공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학년 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이 보이지 않은 결과를 규명할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강유미(2017). 『은유 분석을 통한 초등 수학영재

및 일반학급 학생의 수학에 대한 인식 연구』. 미발행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김경배 · 김재건 · 이홍숙(2005).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노양진(2010). 『몸 언어 철학』. 파주: 서광사.  
 박근서(2002). 은유의 의미에 대한 언어철학적 탐구. 『한국언론학회지』, 46(4), 107-140.  
 박일수 · 권낙원(2007). TGT 협동학습이 수학과 문제해결력 및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1), 21-39.  
 서우석(2011). 『은유 분석을 통한 초등학생의 교사상 탐구』. 미발행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이세희(2016).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의료관광관련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미발행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이연선(2015). 은유와 은유분석 고찰을 통한 교육연구에서 은유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9(1), 253-275.  
 이연수 · 박세원(2012). 초등학생의 도덕 개념에 대한 은유 분석. 『인격교육연구』, 6(1), 31-66.  
 이혜숙(2004). 국내 4년제 대학 호텔경영학과 교과과정의 중요도 분석: 호텔 종사원의 경력 개발 정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3, 198-214.  
 이희수(2017). NCS 식음료서비스분야 자격증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32(1), 85-105.  
 장혜원 · 김강호 · 오상훈(2019). 관광기업의 도덕성에 따른 환경인식,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관광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1), 59-74.  
 장혜원 · 최병길(2019). 관광기업의 사회적 범죄에 대한 고객의 경멸감과 항의행동에 관한 연구: 미덕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3(2), 79-99. <http://dx.doi.org/10.17086/JTS.2019.43.2.79>  
 차석빈 · 이동수(2001). 관광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관광관련 특수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비교연구. 『소비문화연구』, 4(3), 107-121.  
 채희진(2014). 『은유와 내러티브 분석을 통한 고등

-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인식 연구』. 미발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영준(2012). 국내 호텔경영학과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7(4), 513-531.
- 황옥선(2012). DACUM Method에 의한 레저관광 경영학 전공 교육과정 개발 연구. 『산업교육연구』, 26(3), 21-44.
- Andriessen, D. (2009). Metaphor analysis as an approach for exploring theoretical concepts: The case of social capital. *Organization Studies*, 30(8), 1-19.
- Armstrong, S. L., Davis, H. S., & Paulson, E. J. (2011). The subjectivity problem: Improving triangulation approaches in metaphor analysis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10(2), 151-163.
- Beltrami, R. F., Peterson, R. A., & Kozmersky, G. (1984). Concerns of college students regarding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3(August), 195-200.
- Cameron, L., & Low, G. (1999). Metaphor. *Language Teaching*, 32, 77-96.
- Cleek, M. A., & Leonard, S. L. (1998). Can corporate codes of ethics influence behaviour?.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6), 619-630.
- Cohen, J. R., Pant, L. W., & Sharp, D. J. (2001). An examination of differences in ethical decision-making between canadian business students and accounting professionals. *Journal of Business Ethics*, 30(4), 319-336.
- Enghagen, L. K. (1990). Ethics in hospitality/tourism education: A survey. *Hospitality Research Journal*, 14(2), 113-118.
- Donyadide, A. (2010). Ethics in tour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17(3), 1-9.
- Fennell, D. (1999). *Ecotourism: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 Ferrell, O. C., & Skinner, S. J. (1988). Ethical behavior and bureaucratic structure in marketing research organiza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5(1), 103-109.
- Fleckenstein, M., & Huebsch, P. (1999). Ethics in tourism: Reality or hallucin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9(1), 137-143.
- Freedman, A. M., & Bartholemew, P. S. (1990). Age/experience and genders as factors in ethical development of hospitality managers and students. *Hospitality Research Journal*, 14(2), 1-10.
- Fulmer, W. E., & Cargile, B. R. (1987). Ethical perceptions of accounting students: Does exposure to a professional code of ethics help?. *Accounting Education*, 2(Fall), 207-219.
- Galbraith, S., & Stephenson, H. B. (1993). Decision rules used by male and female business students in making ethical value judgments: Another look.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 227-233.
- Gentner, D., & Gentner, D. R. (1983). Flowing waters and teeming crowds: Mental models of electricity. In D. Gentner & A. L. Stevens (Eds.), *Mental models* (pp. 99-129). Hillsdale, NJ: Erlbaum.
- Goodwin, H., & Francis, J. (2003). Ethical and responsible tourism: Consumer trends in the UK.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9(3), 271-282.
- Harris, J. R. (1991). Ethical values and decision processes of business and non-business students: A four group study. *Journal of Legal Studies Education*, 9(2), 215-230.
- Hegarty, J. A. (1992). Towards establishing a new paradigm for tourism and hospital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11(4), 309-317.
- Hudson, S., & Miller, G. (2005). The responsible marketing of tourism: The case of canadian mountain holidays. *Tourism*

- Management*, 26(2), 133-142.
- Hughes, M. (2005). *An Analysis of the Sustainable Tourism Literature*. CAUTHE Conference. Alice Springs. Australia, 1st-5th February.
- Jamal, T. (2004). Virtue ethics and sustainable tourism pedagogy: Phronesis, principles and practic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2(6), 530-545.
- Jones, T. M. (1991). Ethical decision-making by individuals in organizations: An issue-contingent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2), 366-395.
- Kaynama, A., King, A., & Smith, W. L. (1996). The impact of a shift in organizational role on ethical perceptions: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5), 581-590.
- Kohlberg, L. (1984). 『도덕발달의 심리학』,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김민남 · 진미숙 역). 서울: 교육과학사. (해당번역서 원본출판연도 2001)
- Kovecses, Z. (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3). 『삶으로서의 은유』, *Metaphors we live by*(노양진 · 나익주 역). 서울: 박이정. (해당번역서 원본출판연도 2009)
- MacDonald, J. E., & Beck-Dudley, C. L. (1994). Are deontology and teleology mutually exclusiv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8), 615-623.
- Moser, K. S. (1998). *Selbst, sprache, mwelt. Eine untersuchung der symbolischen umwelt der selbstkognition mittels metaphernanalyse*. Dissertation, Zurich: Universitat Zurich.(in press, Lengerich: Pabst Science Publishers, Psychologia Universalis Series).
- Moser, K. S. (2000). Metaphor analysis in psychology: Method, theory, and fields of application.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Vol. 1, No. 2).
- Neuweg, G. H. (1999). *Konnerschaft und implizites wissen. Zur lehr-lerntheoretischen bedeutung der erkenntnis: Und wissenstheorie Michael Polanyis*. Munster: Waxmann.
- O'halloran, R. M. (1991). Ethics in hospitality and tourism education: The new managers. *Hospitality & Tourism Educator*, 3(3), 33-37.
- Okleshen, M., & Hoyt, R. (1996). A cross cultural comparison of ethical perspectives and decision approaches of business students: United States of America versus New Zealand.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5), 537-549.
- Ottati, V., Rhoads, S., & Graesser, A. C. (1999). The effect of metaphor on processing style in an persuasion task: A motivational resonanc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4), 688-697.
- Paulson, E. J., & Armstrong, S. L. (2011). Mountains and pit bulls: Students' metaphors for college transitional reading and writing.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4(7), 494-503.
- Peterson, R. A., Beltramini, R. F., & Kozmetsky, G. (1991). Concerns of college students regarding business ethics: A replic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 733-738.
- Pizam, A., & Lewis, R. C. (1979). Work values of hospitality students. *Journal of*

- Hospitality Education* 3, 5-16.
- Ruegger, D., & King, E. W. (1992). A study of the effect of age and gender upon student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3), 179-186.
- Saban, A., Kocbeker, B. N., & Saban, A. (2007). Prospective teacher's conceptions of teaching and learning revealed through metaphor analysis. *Learning and Instruction*, 17(2), 123-139.
- Schmitt, R. (2005). Systematic metaphor analysis as a method of qualitative research. *The Qualitative Report*, 10(2), 358-394.
- Sheldon, P. J. (1989). Professionalism in tourism and hospital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4), 492-503.
- Singh, J. B. (1989). The teaching of ethics in canadian schools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tudi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8(1), 51-56.
- Slingerland, E. (2004). Conceptions of the self in the Zhuangzi: Conceptual metaphor analysis and comparative thought. *Philosophy East and West*, 54(3), 322-342.
- Sternberg, R. J., & Horvath, J. A. (Eds). (1999). *Tacit knowledge in professional practice. Researcher and practitioner perspectiv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
- Stevens, B. (2001). Hospitality ethics: Responses from human resource directors and students to seven ethical scenarios. *Journal of Business Ethics*. 30(3), 233-242.
- Tarlow, P. (2003). Tourism ethics. *E-review of Tourism Research*, 1(3), 39-41.
- Theobald, W. F. (2005). The meaning, scope, and measurement of travel and tourism. In W. F. Theobald(3rd ed., pp. 5-24.), *Global Tourism*, NY: Butterworth-Heinemann/Elsevier.
- Tribe, J. (2002). Education for ethical tourism action.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0(4), 309-24.
- UNEP-ICLEI. (2003) *Tourism and local agenda 21: The role of local authorities in sustainable tourism*. Edited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ICLEI). Paris: United Nations Publications (UNEP).
- Weber, J. (1990). Measuring the impact of teaching ethics to future managers: A review,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3), 183-190.
- Whitney, D. L. (1989). The ethical orientations of hotel managers and hospitality students: Implications for industry, education, and youthful careers. *Hospitality Education and Research Journal*. 13(3), 187-192.

2019년 3월 12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9년 4월 25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9년 4월 26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